

1. 사역도시: 교타나베시(京田辺市)

저희들의 사역지는 일본 간사이지방(関西地方)에 속한 오사카시(大阪市)와 교타나베시(京田辺市)입니다. 교타나베시는 “일본 속 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토부(京都府)에 속한 31,134세대, 71,405명이 사는 작은 전원도시입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사는 동네는 213명(114세대)이 거주하는 타나베중앙(田辺中央)이고, 외국인은 저희가 이사할 때는 매우 드문 편이었지만 최근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사역은 일본인을 주 대상으로 하고, 개인적 관계와 사귀를 지속할 수 있는 만남을 축으로 하는 “관계중심적 네트워크형 마을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인과의 관계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지역사회에 깊이 관여하고, 주민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사역에 주력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도시락배달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타나베에서의 새로운 개척

코로나 팬데믹은 교회와 선교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전도와 선교가 어렵습니다. 일본선교의 열쇠는 일본인의 생활과 현실에 얼마만큼 밀착하느냐에 달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교실과 식사에 어려움을 가진 주민을 위한 무료도시락배달봉사활동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생활목회와 선교의 가능성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교실에서는 조금씩 신앙적인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참가자가 늘어나고 있고, 기존의 참가자 중에 중단하는 분도 없다는 점입니다. 복음을 보다 선명하게 전하는 순간이 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시(大阪市)에서의 목회사역

교타나베시로 이사한 2019년까지는 오사카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교회개척을 세 번 했는데,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세 번째 교회인 올네이션스교회(All Nations Church)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향해

저희 교회는 말씀과 성령, 그리고 기도의 시대적 이해와 해석에 전념하는 가운데 참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일에 더욱 정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코로나시대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교회공동체 구축을 위한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과 비본질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면서,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성서읽기와 연구에 깊이 천착하고 있습니다. 2022년 드린 부활절 감사예배는 3년 여의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여러 가지 불편하고 돌발상황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아무런 흔들림 없이 한결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지킨 성도간의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한 변화는 그 동안 밀집을 피하기 위해 1부와 2부로 나누어 드렸던 예배를 지난 2022년 4월 말부터 하나로 통일하여 드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3년 여간 거의 갖지 못했던 대면교제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고, 예배에 새로운 활력이 일고 있습니다.



2.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아내인 김순란 선교사에게 더 이상 코로나 후유증이 없고, 김선교사가 섬기는 지적장애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김선교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느끼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2. 고3이 된 딸 현서의 진로와 장래를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천식에 대한 염려 없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3. 한국어교실과 무료도시락배달봉사를 통해 일본사회에 신뢰를 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기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4. 올네이션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선 선교적인 교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3. 기도제목을 나누어주십시오.

저희들 또한 여러분들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늘 함께해주시는 여러분 모두와 저희들 또한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 함께 나눈 기도제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4. 가족사진



5. 저희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선교의 내용은
첨부한 오늘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